

한국인 이념 인식의 단기 변동성: 18대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강 신 구 | 아주대학교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책쟁점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기에 '이념'(ideology)을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이념적으로 가깝거나, 방향적으로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이념투표가 자연스러운 동시에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처럼 이념투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본인과, 경쟁하는 정당 혹은 후보의 이념 성향, 즉 이념적 차원에서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2012년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약 5개월의 기간을 두고 실시·수집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평가하는 본인과 두 후보의 이념인식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본인과 두 후보, 이렇게 모두 세 이념 인식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단기변동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 또한 유권자가 정서적으로 더 큰 호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반대의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체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념투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론들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유권자'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투표선택을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근접성으로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에 한국인 유권자의 모습이 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이념투표, 이념인식, 설득효과, 투사효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이론들은 선거의 시기에 유권자들이 경쟁하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의 이해를 보다 잘 대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권자

*논문에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2013)

들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사회의 중요한 쟁점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세세히 살피고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투표행태 연구자들은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이념’(ideology)을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이념적으로 가깝거나(Downs 1975; Riker and Ordeshook 1968), 방향적으로 일치하는(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는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방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검증해 왔다(Davis et al. 1970; Jacobson 1990; Cox and Munger 1989; Cho and Endersby 2003; Jhee 2006 등). 이와 같은 이념 투표의 경향은 이념과 정책적 입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제한된 정보의 상황 속에서 시민이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증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동시에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선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초기 선거의 연구들이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보고하였던 것에 반하여, 최근의 선거를 분석한 연구들일수록 지역주의의 상대적 약화와 ‘이념’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면, 강원택 2003; 2010; 박찬욱 외 2008; 이내영 2009; 장승진 2012; 강신구 2013 등).¹⁾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무시하고 지역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정당 및 그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선거가 보상과 처벌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그로 인해 민주정치 체제 전반의 대표성과 반응성, 책임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설명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영향력 증진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단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지역주의의 영향²⁾을 상쇄·완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최준영·조진만 2005; 문우진 2009)³⁾

- 1) 많은 연구들은 2002년의 16대 대선, 2004년의 17대 총선이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적한다(예를 들면, 최준영·조진만 2005; 윤성이 2006; 이내영 2009 등)
- 2) 이러한 입장에 반해 영남과 호남의 지역균열이 권위주의 정권 이래의 영남중심 발전전략의 전개에 따른 계급적·이념적 갈등의 반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김만흠 1997 등). 비슷한 시각에서 최영진(2001)은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강화를 지적한다. 또한 조기숙(2000)은 지역주의를 거주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투표결과로 해석한다.
- 3) 모두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윤성이(2006)는 이념갈등으로의 전환이 갈등의 주체가 정치권을 넘어선 일반 국민으로 확산되고, 갈등표출의 시기 역시 선거 국면을 넘어 일상화 되고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적 차이에 따라 투표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념과 정책적 입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유권자들이 본인과, 경쟁하는 정당(후보)의 이념 성향, 즉 이념적 차원에서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식(perceive)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흔히 ‘좌-우’, ‘자유(liberal)-보수(conservative)’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이념적 경쟁에서 이들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책적 입장의 차이와 연결되는지는 이념의 구성적 측면에 관계되는 물음으로서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다.⁴⁾ 이 글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견지에서 후자의 조건의 성립 여부, 즉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들뿐 아니라 본인의 이념성향을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안정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권자가 인식하고 있는 본인과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방대한 경험증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권자의 이념 인식(ideological perception)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념투표(ideological voting)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다운스(Downs 1957)의 논의⁵⁾에 의존할 것 없이, 우리는 ‘이념’이 불변·고정의 것

4)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중 일부만 소개하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좌-우’ 이념적 차원의 구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버지 외(Budge et al. 2001), 클린저만 외(Klingemann et al. 2006) 등 참조.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이념의 구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강원택 2003), 윤성이(2006), 이갑윤·이현우(2008), 윤성이·이민규(2011), 박경미 외(2012) 등 참조.

5) 다운스(Downs 1957, 96. 번역은 박찬욱 외 2008, 198 인용)는 이념을 ‘좋은 사회가 무엇이며 아울러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된 이미지(a verbal image)’로 정의하고, 이러한 이념은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현실의 합리적인 유권자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책비교보다는 이념에 의존한 선택을 함으로써 정보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 또한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선거에 승리해서 결정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지속성을 가지는 정당이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즉, 불확실성에 의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등장하게 될지 모를 다양한 쟁점영역에 대한 비교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유권자는 좋은 사회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후보자 및 정당이라면,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수행하게 되며, 이

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성 혹은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또 그래야지만 이념은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유권자에 의해서 활용되는 ‘정보 첩경’(information shortcut)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권자의 이념 인식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면? 유권자의 이념인식이 이와 같은 단기변동성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념의 안정성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며, ‘합리적인 유권자’(rational voter)라는 가정 혹은 믿음 또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변동성은 유권자의 이념 인식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제공한다. 즉,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혹은 본인에 대한 이념인식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과연 무엇이 후보의, 그리고 유권자 본인의 이념성향의 진정한 모습(혹은 위치)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념 인식의 타당성(validity)은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혹자는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긍정적·부정적 선거운동이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몰랐던 후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불명확성이 제거됨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Conover and Feldman 1989).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유권자의 본인 이념 인식의 단기변동성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우리는 지난 2012년 한국의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발견되는 유권자 본인과 유권자가 평가하는 박근혜·문재인 두 주요 후보의 이념성향(ideological position)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이념 인식의 단기변동성이 선거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지는 이론적, 실질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선거 연구가 특정 선거의 전 또는 후에 실시되는 일회성의 대중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클 것이다. 이러한 조사자료는 특정 시점의 유권자 이념 인식의 한 단면(snapshot)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유권자의 이념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자료는 2012년 4월의 19대 총선 직전부터 12월의 18대 대선 직후에 이르는 기간까지 총 7차에 걸쳐 동일한 유권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된 패널조사자료(panel survey data)⁶⁾이다. 이는

를 알고 있는 후보자와 정당은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혼란된 시그널(signal)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대안들을 제시·실행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관계는 발생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강신구 2013, 90-93).

6)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자료의 구조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비교적 짧은 기간을 통해서 발견되는 유권자 본인과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 변화의 동향을 관찰할 수 있는, 선거연구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패널조사자료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채 반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⁷⁾에 유권자의 본인 이념, 그리고 유권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박근혜·문재인 두 주요후보의 이념 인식이 상대적으로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이 체계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유권자가 정서적으로 더 호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반대의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투표의 이론들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유권자’(rational voter)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투표선택을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근접성(subjective ideological proximity)으로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에 한국인 유권자의 모습이 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Achen and Bartels 2006; 이내영·허석재 2010).

아래에서는 먼저 유권자의 본인을 포함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투표선택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패널조사자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번 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인식이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주관적 이념인식과 유권자 본인의 이념인식이 조사가 실시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석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I. 유권자의 이념 인식과 투표선택: 기존 연구의 검토

다운즈(1957)가 후보와 본인의 이념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투표행위를 이론적으로 역설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이념적 판단 능력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회

7) 비록 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한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자료는 약 9개월(4~12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집되었지만, 1·2차의 조사는 총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박근혜·문재인 두 주요 대선후보의 이념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었다. 이에 이 연구의 분석의 초점은 8월에 실시된 3차 조사부터 12월 대선 직후에 실시된 7차 조사까지 약 5개월간의 유권자 이념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다.

의론의 중심에 서 있는 연구의 하나로서 컨버스(Converse 1964)는 1950년대 후반에 실시된 일련의 전국적 대중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유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를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의 차이와 일관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사고할 만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⁸⁾이기에 이념투표의 가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1972년부터 미국의 전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urvey)에 새로이 편입된 유권자의 자유-보수의 자기 이념 정체성(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을 묻는 설문⁹⁾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이후의 연구들(Levitin and Miller 1979; Conover and Feldman 1981)은, 비록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이념적 차이와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일관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념 정체성을 밝힐 뿐 아니라, 이를 정책적 입장에 느슨하게나마 연결시키고, 무엇보다도 투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이념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념인식이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nder and Kalmoe 2010).

그런데 이념인식과 투표선택의 관계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브로디와 페이지의 연구(Brody and Page 1972)는 이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 그들은 다운스 이후 활성화되고 있던 쟁점투표(issue voting) 연구의 발견, 즉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투표로 연결되는 경험적 규칙성, 예를 들면 외교안보 정책에 민주당이 더 나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똑같은 경험적 규칙성이 전혀 다른 인과관계의 메카니즘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브로디와 페이지(1972)는 인간은 선택과 근거의 일치를 통하여 심리적 균형(psychological balance)를 추구

8) 안정성과 일관성은 정치적 이념의 기초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컨버스(Converse 1964)는 이념 대신에 믿음체계(belief system)라는 표현을 선호하였다(이갑윤·이현우 2008, 149).

9) 1972년의 NES부터 응답자들은 극단적 자유(extremely liberal, 1)부터 중도(4)를 거쳐 극단적 보수(extremely conservative, 7)에 이르는 7점 척도로 구성된 이념선상에 자신을 위치시킬 것을 요구받았다(Kinder and Kalmoe 2010).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¹⁰⁾에 근거하여, 유권자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미 민주당에 대한 선택을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의 입장이 더 나은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persuasion)하거나, (민주당의 입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는 투사(projection)의 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선택지에 따라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투사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자신의 인식에 따라 선택지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설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우리는 쟁점태도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강한 상관관계라는 동일한 경험적 규칙성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로디와 페이지(1972)의 문제제기는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유권자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가려내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와 설득의 효과를 온전히 가려내는 작업은, 이념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동일한 유권자 집단에 대해 시차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었기에,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마침내 마커스와 컨버스(Markus and Converse 1979)는 1972년과 1976년의 미국 전국선거조사(ANES) 패널 데이터를 동적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전 시기(1972)¹¹⁾ 본인 위치 인식과 후보의 현재 위치(1976), 그리고 후보에 대한 정서적 평가(1976)에 따라 응답자가 인식하는 후보자의 위치가 변화하는 투사효과와 응답자 본인의 현재 위치(1976)가 변화하는 설득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Markus and Converse 1979, 1068)은 이와 함께, 후보에 대한 정서적 평가 또한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본인과 후보자의 정책의 거리차(1976)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후보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책쟁점과 이념인식 사이에는 “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가지는 영향력을 성급히 간과하는 것을 경계한다.

브로디와 페이지(1972), 그리고 마커스와 컨버스(1979)의 연구는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

10) 이들은 이를 ‘심리적 균형’(psychological balanc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지만, 그 내용이 함의하는 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요소들(태도, 의견) 간 혹은 이러한 인지적 요소와 행위, 결과 등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인간은 심리적 긴장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일치하는 태도나 행동 중 어느 한 쪽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과 일치한다(Beasley and Joslyn 2001; 이상신 2013).

11) 괄호 안은 변수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념인식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와는 약간은 다르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Conover and Feldman 1981; 1989; Feldman and Conover 1983; Brady and Sniderman 1985; Jacoby 1991 등)은 유권자들이 가지는 주관적 이념 인식 자체가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및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의 쟁점에 대한 태도(위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펠드만과 코노버(Feldman and Conover 1983, 813)는 이를 단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부족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인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 연구들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은 이념 인식과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로디와 페이지(1972), 그리고 마커스와 컨버스(1979)가 예상하고 밝혔던 것처럼, 정책 쟁점에 대한 태도의 인식뿐 아니라, (본인과 후보자에 대한) 이념 인식 역시 후보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에 따라 투사 혹은 설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이 연구의 분석의 초점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시도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 내영과 허석재(2010)는 17대 대선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인식에 상당한 정도의 투사·역투사 효과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한국선거연구가 다른 해외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념을 설명변인으로 했던 것에 반하여,¹²⁾ 이들의 연구는 이념인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하며, 그것도 쟁점에 대한 인식을 넘어 이념인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했던 해외의 문헌들과도 차별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앞의 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본인 이념인식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설득’의 효과는 살펴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¹³⁾

사실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응답자의 본인 이념성향 인식은 200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12) 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 방대하여 소개를 생략하고자 한다. 이갑윤·이현우(2008), 박찬욱 외(2008), 이내영(2009) 등은 충실한 문헌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3)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가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에 미치는 편향의 기제를 분석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장승진(2013)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의 변화는 분석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념성향의 분포와 변화(강원택 2003; 이내영 2009 등), 혹은 구체적인 정책적 쟁점에 대한 입장과의 관련성, 즉 구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응답자의 주관적 본인 이념인식과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이현지 2003; 김주찬·윤성이 2003), 응답자의 주관적 본인 이념인식 지표의 타당성을 비판하며, 새로운 이념 측정의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윤성이 2006; 이갑윤·이현우 2008; 윤성이·이민규 2011; 박경미 외 2012 등). 결국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 자체와 그 단기변동성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은 그 동안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설명력을 더해가고 있다(김주찬·윤성이 2003; 박찬욱 외 2008; 강신구 2013 등).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검토는 유권자의 이념인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우리는 이 연구에서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인식하는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과 아울러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이 조사가 이루어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호감도와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키는 설득과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을 변화시키는 투사의 효과가 나타났는지가 이어지는 경험 분석의 초점이 된다.

II. 데이터, 이념 인식이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응답자의 이념인식의 변화에 대한 예비적 분석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하여 2012년 4월의 19대 총선 직전부터 12월의 18대 대선 직후에 이르는 기간까지 총 7차에 걸쳐 동일한 유권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된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¹⁴⁾ 연구의 핵심 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과 아울러 후보의 이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그리고 후보에 대한 호감도이다. 유권자의 이념인식과 관련하여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문은 응답자에

14) 7차에 걸친 조사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5444명이며, 7차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 수는 1001명이다. 조사의 설계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강충구(2013) 참조.

〈표 1〉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일정 및 핵심 설문 포함 여부

조사	조사 시기	조사 시기 특기 사항	응답자 수*	본인 이념	후보 이념**	후보 호감도**
1차	4월 6일~4월 10일	총선 직전	3,062	○		
2차	4월 12일~4월 18일	총선 직후	2,512			○
3차	8월 11일~8월 19일	대선 후보 검증기	2,662	○	○	
4차	11월 3일~11월 13일	대선 후보 결정 시기	2,597	○	○	○
5차	11월 30일~12월 9일	대선 후보 등록 직후	2,521			
6차	12월 13일~12월 18일	대선 직전	2,543	○	○	○
7차	12월 21일~12월 30일	대선 직후	2,551	○	○	

주: *2차 조사 이후의 응답자 수는 이전의 조사에 참여했던 기존 응답자와 패널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이 모집한 신규 응답자를 포함한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일정은 강충구(2013)의 〈표 1-1〉(20쪽)과 〈표 1-3〉(26-27쪽)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핵심 설문 포함사항은 직접 작성

게 “매우 진보적이다”를 0, ‘중도적이다’를 5, ‘매우 보수적이다’를 10으로 했을 때, 선생님의 이념성향은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설문은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매우 싫어한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좋아한다’를 10으로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답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의 핵심 변수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조사는 이러한 설문을 모든 차수에 걸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1〉은 이러한 패널조사의 시기와 핵심 설문의 포함 여부를 밝히고 있다.

응답자의 이념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응답자가 인식하는 이념적 관계가 18대 대선에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선 직후에 실시된 7차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념인식이 투표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념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0(매우 진보)에서 10(매우 보수)으로 구성되는 11점 척도의 이념선상에 스스로 위치시킨 응답자의 본인이념 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념근접성(Downs 1957)의 영향

을 살피기 위해, 유권자 본인과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을 이용하여, 박근혜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와 문재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측정한 후, 후자에서 전자를 뺀 값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이념 근접성이라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에 이 변수는 -10에서 10의 값을 가지며, -10은 응답자가 본인과 문재인 후보를 이념선상의 0에, 박근혜 후보를 10에 위치시키는 경우로서 박근혜 후보의 이념을 극단적으로 멀게 인식하는 경우이다(10은 반대의 경우). 이념근접성 이론은 이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박근혜 후보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한다.¹⁵⁾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우선 여성, 응답자의 출신지역에 의한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북/전남, 직업집단별 특성에 따른 농업/임업/어업, 사무직, 전문직/경영인, 학생, 정당에 대한 일체감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일체감, 민주통합당 일체감¹⁶⁾은 모두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최근의 한국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답자의 만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교육수준(4점 척도), 소득수준(6점 척도), 정치관심도¹⁷⁾가 함께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는 이명박 평가와 노무현 평

15) 이념투표와 관련한 한국의 많은 문헌들은 이념근접성 이론과 함께 방향성 이론(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에 의한 투표모형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방향성 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예를 들어, Jhee 2006),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석의 의의가 이념인식의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념근접성 이론에 기초한 검증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6)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은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를 묻고, 이에 대해 긍정의 질문을 한 응답자에게는 다시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를 묻는 한편, 부정의 질문을 한 응답자에게는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당당일체감은 이를 통해서 구성된 일곱 범주의 집단을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유의할 점은 처음 질문에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질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즉, independent leaner)는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17) 정치관심도 변수는 대선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설문은 3·4·5·6차 조사에는 포함되었지만, 7차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에 정치관심도 변수는 3·4·5·6차 조사의 평균값(0-4)으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가 가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¹⁸⁾ <표 2>는 이상의 변수를 포함하여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결정 요인을 프로빗(probi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 2>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이념 위치(본인이념)뿐 아니라,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에 대한 인식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이념 근접성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령의 영향이 이념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록 방향적으로는 일치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주장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¹⁹⁾ 이는 유권자의 이념인식이 연령의 효과를 흡수한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남성·48세·수도권 거주·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사무직 종사자·가계소득(200만 이상 300만 이하)·두 전직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각각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명박·노무현 각 0.729, 0.559)·어떤 정당에게도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를 상정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이 유권자의 이념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가상(simulation)해 보면, 이념이 0에서 5를 거쳐 10으로 변화함에 따라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6.9, 29.1, 75.7퍼센트로 순차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치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본인의 이념과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 유권자의 이념인식은 조사가 이루어진 2012년의 기간 동안 같은 모습이었을까? <그림 1>은 유권자의 이념인식에 대한 설문이 포함된 1·3·4·6·7차 조사에 나타난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인식 평균값의 변화를 추적하여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인식이 2012년의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우리는 두 후보의 이념적 차이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유권자가 인식하는 속에, 유권자

18) 이외에도 경제투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이 포함되었지만, 이들 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보고를 위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9) 이념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모형을 추정할 경우, 연령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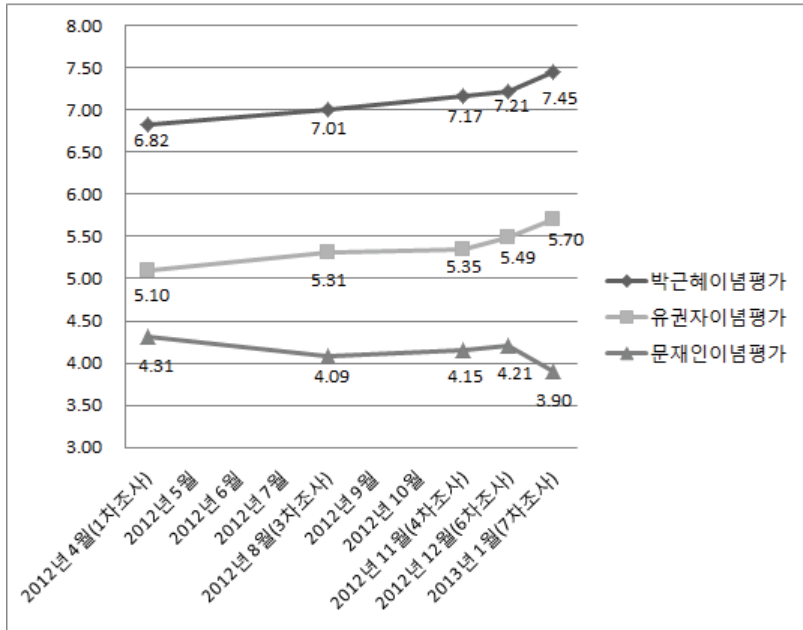
20) 4월의 19대 총선 전에 실시된 1차 조사의 경우 후보의 이념에 대한 설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대신하였다.

〈표 2〉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결정요인 분석: 프로빗 추정(probit estimation)

	추정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상수	-1.218**	0.585	0.037
여성	0.119	0.111	0.286
연령	0.008	0.005	0.124
출신지역			
대구/경북	0.044	0.153	0.773
광주/전북/전남	-0.248*	0.139	0.074
교육수준 (1=중졸 이하~4=대졸 이상)	-0.066	0.059	0.268
직업집단			
농업/임업/어업	-0.354	0.343	0.302
사무직	-0.254*	0.148	0.086
전문직/경영인	-0.254	0.203	0.210
학생	-0.396	0.256	0.121
소득수준 (1=100만 이상~6=501만 이상)	-0.003	0.039	0.938
정치관심도 (1=매우 높음~4=전혀 없음)	0.229**	0.101	0.023
전임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이명박 평가 (0=긍정적; 1=부정적)	-0.763***	0.151	0.000
노무현 평가 (0=긍정적; 1=부정적)	0.724***	0.109	0.000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일체감	1.558***	0.136	0.000
민주통합당 일체감	-0.665***	0.128	0.000
이념성향			
본인이념 (0=매우 진보~10=매우 보수)	0.134***	0.037	0.000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이념 근접성 (-10~10)	0.114***	0.022	0.000
응답자 수	1533		
로그우도	-358.321		

주: * $p < 0.1$, ** $p < 0.05$, *** $p < 0.001$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7차 조사자료.



주: 1차 조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이념평가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1, 3, 4, 6, 7차 조사.

〈그림 1〉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인식 변화

의 본인 이념 인식은 점차 보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¹⁾ 결과적으로 〈그림 1〉은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의 평균값이 점차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이념인식에 대한 평균값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의 결과는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값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미시적인 차원의 변화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 있다. 〈표 3〉은 이를 개별 유권자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3·4·6·7차 조사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를 이념적으로 더 가깝게, 혹은 이념적 거리의 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율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우리는 양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던 시기에 행해진 4차 조사의 시기까지는 문재인 후보를 이념적으로 가깝게

21) 그림은 조사의 각 차수별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기에, 표본의 변동에 따른 변화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도 동일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 변화

	3차		4차		6차		7차	
	(명)	(%)	(명)	(%)	(명)	(%)	(명)	(%)
박근혜 후보를 이념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응답자	810	37.90	851	32.77	936	36.81	1,094	42.89
두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같게 여기는 응답자	353	16.52	501	19.29	465	18.29	431	16.90
문재인 후보를 이념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응답자	974	45.58	1,245	47.94	1,142	44.91	1,026	40.22
계	2,137	100.00	2,597	100.00	2,543	100.00	2,55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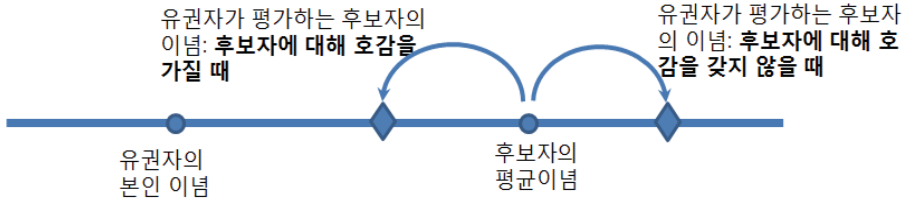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2년 총선·대선 패널조사』 3, 4, 6, 7차 조사

여기는 응답자 집단이 더 커졌지만, 이후 이 집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7차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이념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응답자 집단과 역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인식은 지속적인 변화의 양상을 거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유권자가 인식하는) 정치권의 원심적 경쟁의 양상 속에서 유권자의 전반적인 이념적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박근혜 후보가 선거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보인다.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을 만들어 낸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III.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의 이념 분석: 투사(projection) 효과의 검증

우리는 먼저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의 이념, 즉 투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투사효과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예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투사효과 분석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응답자가 후보에 대해 평가하는 이념과 모든 응답자들이 그 후보에 대해 평가하는 이념의 평균값이 보이는 편차의 크기와 방향이다. 비록 후보의 이념 평균값이 그 후보의 실제적 이념은 아닐지라도, 그 편차 자체는 응답자가 후보에 대해 가지는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투사효과를 주장하는 연구



〈그림 2〉 투사 효과에 대한 이론적 예상

들(Markus and Converse 1973 등)은 인간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부터 발생하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감소시키므로써 심리적 균형을 추구한다는 사회심리학의 설명에 이론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감이 서로 엇갈리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이념의 평균값보다, 응답자들이 호감을 갖는 후보의 이념은 가깝게, 호감을 갖지 않는 후보의 이념은 멀게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그림은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론적 예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_1^C = \alpha_1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1 X_2 + \varepsilon_1^c, \quad (1)$$

Y_1^C 응답자가 평가하는 후보의 이념 - 후보의 이념평균

X_1 응답자의 본인이념 - 후보의 이념평균

X_2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X_1 X_2$ [응답자의 본인이념 - 후보의 이념평균] ×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위 식에서 X_2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는 해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뺀 값을 의미한다. 즉 이 값이 양(+)이면 해당 후보를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X_1 과 X_2 의 상호작용항인 $X_1 X_2$ 의 계수인 β_3 의 부호이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하나의 후보가 있고, 그 후보를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응답자가($X_2 > 0$) 그 후보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이념의 왼편에 있다($X_1 < 0$)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이 응답자가 그 후보의 이념을 평균값보다 자신에게 가까운 방향, 즉 왼편에 위치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때, 우리의 종속변수인 Y_1^C 는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요건들이

(표 4) 유권자의 후보 이념 인식 결정요인 분석
박근혜 후보

종속변인: 응답자가 평가하는 박근혜 후보의 이념 - 박근혜 후보의 이념평균				
	3차	4차	6차	7차
응답자의 본인 이념 - 박근혜 후보 이념 평균	0.110^{***} (0.027)	0.047[*] (0.022)	0.104^{***} (0.022)	0.211^{***} (0.020)
박근혜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0.034^{**} (0.014)	0.099^{***} (0.012)	0.079^{***} (0.011)	-0.001 (0.011)
[응답자의 본인 이념 - 박근혜 후보 이념 평균]× [박근혜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0.065^{***} (0.005)	0.061^{***} (0.003)	0.056^{***} (0.003)	0.056^{***} (0.003)
상수	-0.014 (0.076)	-0.229^{***} (0.063)	-0.161[*] (0.063)	0.020 (0.057)
응답자 수	1,576	2,597	2,543	2,174
R ²	0.1445	0.1141	0.1194	0.1909

문재인 후보

종속변인: 응답자가 평가하는 문재인 후보의 이념 - 문재인 후보의 이념평균				
	3차	4차	6차	7차
응답자의 본인 이념 - 문재인 후보 이념 평균	0.056[*] (0.025)	0.125^{***} (0.018)	0.144^{***} (0.019)	0.053^{**} (0.020)
문재인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0.014 (0.012)	0.031^{***} (0.009)	0.058^{***} (0.009)	0.006 (0.011)
[응답자의 본인 이념 - 문재인 후보 이념 평균]× [문재인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0.044^{***} (0.004)	0.051^{***} (0.003)	0.048^{***} (0.003)	0.039^{***} (0.003)
상수	0.132[*] (0.058)	0.105[*] (0.044)	0.076 (0.049)	0.149[*] (0.059)
응답자 수	1,576	2,597	2,543	2,174
R ²	0.1445	0.1141	0.1194	0.1909

주: * p<0.05, ** p<0.01, *** p<0.001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상호작용항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X_1X_2 < 0$), Y_1^C 가 음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계수가 양(+)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즉, $\beta_3 > 0$).

이와 같은 예상을 가지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이념인식을

〈표 5〉 유권자의 후보 이념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유권자의 본인 이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5	0	5
0	박: 7.92 문: 2.95	박: 6.31 문: 3.68	박: 4.69 문: 4.41
5	박: 7.05 문: 4.88	박: 6.82 문: 4.40	박: 6.60 문: 3.92
10	박: 6.17 문: 6.80	박: 7.34 문: 5.12	박: 8.51 문: 3.44

주: 앞의 〈표 4〉에 제시된 6차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 6차 조사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의 이념평균은 7.21(표준오차: 0.042), 문재인 후보의 이념평균은 4.21(표준오차: 0.041).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의 평균은 -0.26이며, 표준편차는 5.32임.

3·4·6·7차 조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반최소자승(OLS) 모형을 통해서 추정된 결과를 다음의 〈표 4〉는 보여주고 있다.²²⁾ 〈표 4〉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게 모든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의 추정회귀계수($\hat{\beta}_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는 $\hat{\beta}_1$ 역시 모든 경우에서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응답자들이 호감도에 관계없이 일단 후보의 이념을 자신과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개별적인 위치는 호감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hat{\beta}_3$ 는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복잡하게 구성된 변수와 상호작용항의 존재로 인하여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우리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그 추정회귀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다음의 〈표 5〉은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이 매우 진보(0), 중도(5), 매우 보수(10)로 변하며,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5에서 0을 거쳐 5로 변할 때,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이 변화하는 예측값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을 위해서 앞의 〈표 4〉에 제시된 6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평균값은 각각 7.21과 4.21이다. 〈표 5〉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우, 즉 문재인 후

22)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인식을 묻는 질문은 3·4·6·7차 조사에 포함된 반면, 호감도 질문은 2·4·6차 조사에 포함되었기에, 2차의 호감도 조사 결과를 3차의 후보자 이념인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6차의 호감도 조사 결과는 6·7차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 때 우리는 모든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 영역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상대적 이념거리가 가까워지고, 문재인 후보와의 상대적 이념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서적 호감도의 작용이 배제되는 (상대적 호감도가 0인) 경우에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 모두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즉 유권자 본인이 진보적일수록 후보 또한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표 5>는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이념인식이 유권자의 본인이념인식과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우리의 예상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변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분석은 매 조사시기의 후보 이념인식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이기에 이념인식의 변동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3차에서 4차로, 그리고 4차에서 6차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후보이념인식의 변동을 살펴보았다.²³⁾ 이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2^C = \alpha_2 + \beta_4 X_3 + \beta_5 X_4 + \beta_6 X_3 X_4 + \varepsilon_2^C, \tag{2}$$

Y_2^C 후보의 이념_t - 후보의 이념_{t-1}
 X_3 후보의 이념_{t-1}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X_4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 -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1}
 $X_3 X_4$ [후보의 이념_{t-1}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 -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1}]

시간의 경과에 의해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상승한다($X_4 > 0$)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앞에서와 같은 논리에 의해, 만약 전기($t-1$)에 유권자가 후보의 왼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X_3 > 0$), 호감도의 상승에 의해 자신에게 더 가까운 방향, 즉 왼쪽으로 후보의 이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Y_2^C 는 음(-)의 부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상호작용항($X_3 X_4$)의 부호는 양(+)의 값이므로, Y_2^C 가 음(-)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β_6 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다음의 <표 6>은 이러한 우리의 이론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에서 우리는 상호작용항의 추정회귀계수가 예상

23) 6차에서 7차로 변동하는 과정을 살펴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독립변수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7차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6〉 유권자의 후보 이념 평가 변동 결정요인 분석

박근혜 후보

종속변인: (유권자가 평가하는) 박근혜 후보의 이념(t) - 박근혜 후보의 이념($t-1$)		
	3차→4차	4차→6차
박근혜 후보 이념($t-1$) - 유권자 본인 이념($t-1$)	-0.382^{***} (0.023)	-0.362^{***} (0.018)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t - (t-1)$) [†]	0.016 (0.026)	0.052[*] (0.023)
[박근혜 후보 이념($t-1$) - 유권자 본인 이념($t-1$)] ×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	-0.011[*] (0.005)	-0.024^{**} (0.009)
상수	0.837^{***} (0.080)	0.680^{***} (0.067)
응답자 수	1245	1842
R^2	0.1809	0.1815

문재인 후보

종속변인: (유권자가 평가하는) 문재인 후보의 이념(t) - 문재인 후보의 이념($t-1$)		
	3차→4차	4차→6차
문재인 후보 이념($t-1$) - 유권자 본인 이념($t-1$)	-0.274 ^{***} (0.023)	-0.249^{***} (0.018)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변동($t - (t-1)$) [‡]	0.059[*] (0.024)	0.061^{**} (0.021)
{문재인 후보 이념($t-1$) - 유권자 본인 이념($t-1$)} ×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	-0.009[*] (0.004)	-0.018^{**} (0.005)
상수	-0.336^{***} (0.073)	-0.237^{***} (0.061)
응답자 수	1167	1842
R^2	0.1253	0.109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 -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1$)로 측정. ‡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 -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1$)로 측정.

〈표 7〉 전기($t - 1$) 유권자의 본인 이념과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에 따른 당해기(t) 후보 이념인식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유권자의 본인 이념($t - 1$):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변동: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5 증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5 감소)	상대적 호감도 변동 없음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5 감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5 증가)
0	박: 4.71 문: 2.89	박: 5.32 문: 2.83	박: 5.94 문: 2.77
5	박: 7.12 문: 3.69	박: 7.13 문: 4.08	박: 7.15 문: 4.46
10	박: 9.53 문: 4.48	박: 8.94 문: 5.32	박: 8.36 문: 6.16

주: 앞의 〈표 6〉에 제시된 4차→6차 사이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 4차 조사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의 이념평균 7.17, 문재인 후보의 이념평균 4.15를 가상의 유권자가 전($t - 1$)기에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위치로 판단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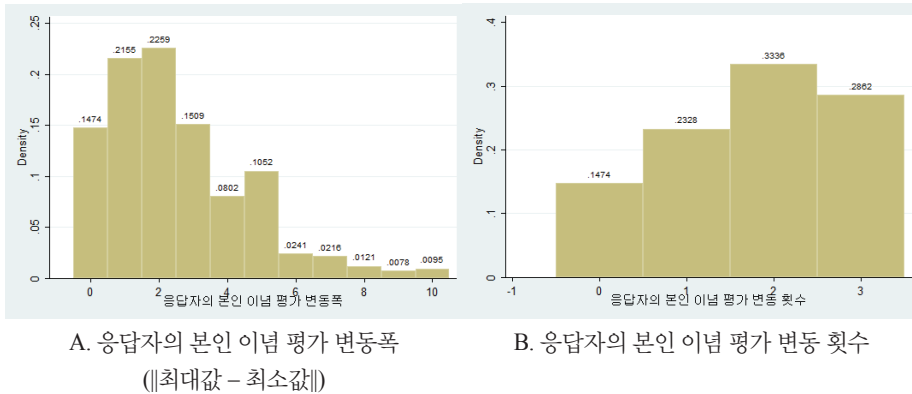
과 일치하는 것($\hat{\beta}_6 < 0$)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한 후,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후보 이념인식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다음의 〈표 7〉은 보여주고 있다. 표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앞의 〈표 6〉에서 4차에서 6차 사이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에 전기($t-1$)에 유권자가 인식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이념인식은 4차 조사의 평균값인 7.17과 4.15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모든 응답자가 같은 후보의 이념인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7〉의 예측치는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수록 본인과의 이념거리를 가깝게 인식하며, 호감도의 변동이 없을 때에도 역시 본인과의 이념거리를 짧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hat{\beta}_4 < 0$)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의 이념인식이 본인의 이념인식과 후보에 대한 호감의 영향을 받는 투사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IV.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 변동: 설득효과 검증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의 이념에 투사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유권자의 본인 이념인식에 후보가 미치는 설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예비작업으로 우리는 먼저 3·4·6·7차의 조사에 나타난 응답자 본인 이념인식의 변동폭(조사에서 나타난 본인 이념인식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과 변동횟수(모두 같은 위치였으면 0, 4차례 조사에서 모두 다른 답을 했을 경우 3의 값을 갖는다)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그림 3>은 그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자신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은 응답자는 14.7퍼센트에 불과하고, 62퍼센트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3번의 가능한 횟수 중에 2번 이상 자신의 이념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변동폭(≥5)을 보인 유권자도 18퍼센트에 달한다.

어떤 유권자가 이처럼 자주, 그리고 크게 자신의 이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의 <표 2>의 분석에 포함되었던 변수 중 이념변수를 제외하고, 대신 응답자 이념편향과 후보호감도 변동폭, 변동횟수²⁴⁾라는 세 변수를 더하여 분석한 결과가 다



<그림 3> 응답자의 본인 이념 평가 변동

24) 응답자 이념 편향은 3·4·6·7차 조사에 걸친 응답자 이념의 평균값과 중도를 의미하는 5와의 거리(절대값)로 측정하였다. 후보 호감도 변동폭 및 변동횟수는 2·4·6차의 후보 호감도 설문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및 변동 횟수로 측정.

〈표 8〉 응답자의 본인 이념 평가 변동 결정요인 분석: OLS 회귀분석

종속변인:	변동폭		변동 횟수	
	추정회귀계수	(표준오차)	추정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2.166**	(0.732)	1.296**	(0.435)
여성	0.005	(0.144)	-0.026	(0.085)
연령	0.007	(0.007)	0.000	(0.004)
출신지역				
대구/경북	-0.105	(0.180)	0.106	(0.103)
광주/전북/전남	0.099	(0.188)	-0.002	(0.106)
교육수준	-0.110**	(0.043)	-0.069*	(0.042)
직업집단				
농/임/어	1.268**	(0.405)	0.448*	(0.239)
사무	-0.385**	(0.178)	-0.049	(0.100)
전문/경영	-0.302	(0.265)	-0.080	(0.148)
학생	-0.320	(0.343)	0.058	(0.214)
소득수준	-0.020	(0.047)	-0.005	(0.027)
정치관심도	-0.121	(0.139)	0.020	(0.081)
전임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이명박 평가	0.241	(0.175)	0.149	(0.102)
노무현 평가	-0.208	(0.156)	-0.065	(0.089)
정당일체감				
새누리	0.318	(0.200)	0.147	(0.113)
민주통합당	0.518**	(0.191)	0.260**	(0.109)
응답자 이념 편향 [†]	0.135**	(0.059)	0.113***	(0.033)
후보 호감도 변동폭 [‡]	0.076**	(0.029)		
후보 호감도 변동횟수 [‡]			0.081*	(0.047)
응답자 수	986		730	
R ²	0.0702		0.0498	

주: * $p < 0.1$, ** $p < 0.05$, *** $p < 0.001$. † 응답자 이념 편향은 3·4·6·7차 조사에 걸친 응답자 이념의 평균값과 중도를 의미하는 5와의 거리(절대값)로 측정. ‡ 후보 호감도의 변동폭 및 횟수는 2·4·6차의 후보 호감도 설문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및 변동 횟수로 측정.

음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관된 인식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이념인식이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 및 횡수를 보여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발견은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이 (비록 새누리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그리고 스스로의 평균적 이념값이 보다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중도의 응답자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 8>의 마지막에 제시된 후보 호감도 변수의 영향력은 설득 효과의 작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득은 유권자가 후보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서처럼 두 후보를 가지는 경우, 두 후보가 응답자에 미친 영향을 분리하여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두 후보 모두를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설득효과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념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경우 두 후보 중 누가 그러한 변화에 더 큰 기여를 하였는가를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하지만 이것 자체가 다른 측면에서의 설득효과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설득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방금 설명하였듯이, 두 후보 모두의 왼쪽(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응답자는 자신의 이념위치를 오른쪽(왼쪽)으로 옮길 것이며, 두 후보의 사이에 위치하는 응답자들은 일부는 오른쪽으로 일부는 왼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합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9>는 이러한 예상을 확인해주고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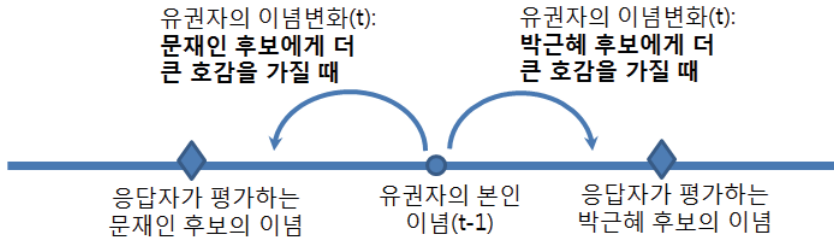
<표 9>에서는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 대신에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표시하였다. 평균값(μ)에 대한 추정의 신뢰치와 관련되는 표준오차 대신에 그 변동의 양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에서 우리는 응답자의 이념 변화의 방향과 폭이 예상과 일치하는 것과 함께, 표준편차의 크기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를 왼쪽에 박근혜 후보를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일부는 왼쪽으로, 또 다른 일부는 오른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를 수행하는가? 다음의 <그림 4>는 후보 각각에 대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이념적 거리와 호감도에

25) <표 10>에서 박근혜 후보를 문재인 후보의 왼쪽에 위치시키고, 본인을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표 9〉 두 후보에 대한 이념평가에 따른 응답자 본인 이념의 변화

변동시기		응답자의 본인 이념과 두 후보에 대한 이념평가의 관계:		
		두 후보 모두의 이념보다 왼편(진보)에 위치하는 응답자	두 후보의 사이에 위치 하는 응답자	두 후보 모두의 이념보다 오른편(보수)에 위치 하는 응답자
3차→4차	응답자 수	242	986	207
	변동평균	1.40 (2.42)*	-0.08 (1.93)	-1.14 (1.99)
4차→6차	응답자 수	319	1074	185
	변동평균	1.55 (2.39)	0.09 (2.04)	-1.59 (2.62)
6차→7차	응답자 수	358	1281	208
	변동평균	1.12 (2.31)	0.19 (2.04)	-1.06 (2.17)

주: * 괄호 안은 표본표준편차.



〈그림 4〉 문재인 후보를 왼쪽, 박근혜 후보를 오른쪽에 위치시키는 응답자에게 발생하는 설득 효과에 대한 이론적 예상

따라서 유권자가 본인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4〉에 표현된 이론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t = \alpha_3 + \gamma_1 Z_1 + \gamma_2 Z_2 + \gamma_3 Z_3 + \gamma_4 Z_1 Z_3 + \gamma_5 Z_2 Z_3 + \varepsilon^t, \tag{3}$$

Y^t 응답자의 본인이념_t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Z_1 문재인 후보의 이념_{t-1}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Z_2 박근혜 후보의 이념_{t-1}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Z_3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1}

$Z_1 Z_3$ [문재인 후보의 이념_{t-1} - 응답자의 본인이념_{t-1}] ×

$$\begin{aligned}
 & [\text{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1}] \\
 & Z_2 Z_3 [\text{박근혜 후보의 이념}_{t-1} - \text{응답자의 본인이념}_{t-1}] \times \\
 & [\text{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_{t-1}]
 \end{aligned}$$

우리는 이 식에서 전기($t - 1$)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본인의 이념인식을 오른쪽으로 옮기리라고 예상한다. 이 때, γ_1 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γ_3 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gamma_3 > 0$). 또한 Z_2 가 이미 양의 값을 가지므로 박근혜 후보를 더 선호한다면($Z_3 > 0$), 상호작용항인 $Z_2 Z_3$ 또한 양의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선호하면서도 이념적 거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 이를 더 급격하게 줄이고자 하는 작용이 존재한다면 γ_5 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gamma_5 > 0$). 반면에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더 선호한다면($Z_3 < 0$), 자신의 이념을 왼쪽으로 옮길 것이다. 이 때, γ_1 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γ_3 는 여전히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gamma_3 > 0$). 그러나 이미 Z_1 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상호작용항인 $Z_1 Z_3$ 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문재인 후보를 선호하는 경우에 이념적 거리를 크게 느낄수록 더 급격하게 이념적 거리를 줄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γ_4 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gamma_4 < 0$).

〈표 10〉은 이러한 우리의 이론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해, 3차에서 4차, 4차에서 6차, 그리고 6차에서 7차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응답자의 본인 이념인식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⁶⁾ 표에서 우리는 모든 추정회귀계수가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인식하는 이념적 거리와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본인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키는 설득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한 후, 마찬가지로 응답자 본인 이념인식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표 11〉은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표 10〉에서 4차에서 6차 사이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였고, 응답자가 전기에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이념이 5인 경우로 가정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념인식을 0, 2, 4, 박근혜 후보의 이념인식을 6, 8, 10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를 -5, 0, 5로 변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현재(t)의 응답자의 본인 이념인식의 위치를 예측하였다. 이 가상의 응답자가 5(중

26) 분석에는 전기($t - 1$)에 문재인 후보의 오른쪽, 박근혜 후보의 왼쪽에 본인의 이념을 위치시킨 응답자만을 포함하였다.

〈표 10〉 후보의 이념에 대한 평가 및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에 따른 응답자의 본인 이념인식의 변동

종속변인: 응답자의 본인 이념(t) - 응답자의 본인 이념($t - 1$)			
	3차→4차	4차→6차	6차→7차
문재인 후보 이념($t - 1$) - 유권자 본인 이념($t - 1$)	0.230^{***} (0.042)	0.189^{***} (0.038)	0.225^{***} (0.034)
박근혜 후보 이념($t - 1$) - 유권자 본인 이념($t - 1$)	0.136^{***} (0.041)	0.245^{***} (0.034)	0.321^{***} (0.029)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 - 1$)	0.030 (0.033)	0.056^{**} (0.022)	0.175^{***} (0.025)
{문재인 후보 이념($t - 1$) - 유권자 본인 이념($t - 1$)} ×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 - 1$)}	-0.011[*] (0.005)	-0.007[*] (0.004)	-0.006 (0.005)
{박근혜 후보 이념($t - 1$) - 유권자 본인 이념($t - 1$)} ×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 - 1$)}	0.012[*] (0.007)	0.010[*] (0.006)	0.004 (0.005)
상수	0.059 (0.158)	-0.097 (0.143)	0.005 (0.121)
응답자 수	713	1074	1281
R^2	0.0812	0.1132	0.2041

주: * $p < 0.1$, ** $p < 0.05$, *** $p < 0.001$. 전기($t - 1$)에 문재인 후보의 오른쪽, 박근혜 후보의 왼쪽에 본인의 이념을 위치시킨 응답자만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도)라는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11〉에서 우리는 모든 셀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셀 안의 숫자들이 오른쪽 셀로 이동할수록(박근혜 후보의 이념을 멀게 느낄수록) 더 많이 보수적으로 이동하며, 아래의 셀로 이동할수록(문재인 후보의 이념을 멀게 느낄수록) 더 많이 진보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각선의 셀 중의 가운데 숫자들(두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같게 인식하며, 호감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경우)이 출발점(5)으로부터의 진폭이 가장 작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권자가 후보와의 이념거리 인식과 후보에 대한 정서적인 호감도에 따라 자신의 이념인식을 변화시키는 설득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표 11〉 전기($t-1$) 본인 이념평가가 5인 응답자의 당해기(t) 본인 이념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문재인 후보 이념 ($t-1$)	박근혜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t-1$)	박근혜 후보 이념($t-1$)		
		6	8	10
4	-5	4.59	4.98	5.37
	0	4.96	5.45	5.94
	5	5.32	5.92	6.51
2	-5	4.15	4.53	4.92
	0	4.58	5.07	5.56
	5	5.01	5.60	6.19
0	-5	3.70	4.09	4.48
	0	4.20	4.69	5.18
	5	4.70	5.29	5.88

주: 앞의 〈표 10〉에 제시된 4차—6차 사이의 응답자 본인 이념평가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 전기($t-1$) 응답자의 본인 이념평가를 5로 가정.

V. 맺으며: 선거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유권자

이 글에서 우리는 2012년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약 5개월의 기간을 두고 수집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평가하는 본인과 두 후보의 이념인식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본인과 두 후보, 이렇게 모두 세 이념 인식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단기변동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 또한 유권자가 정서적으로 더 큰 호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후보의 이념적 입장을 자신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투사),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후보에 가깝게 변화시킴으로써(설득), 결과적으로는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호감을 갖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체계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이론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책쟁점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기에 ‘이념’(ideology)을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이념적으로 가깝거나, 방향적으로 일치하는 후보

를 선택하는 이념투표가 자연스러운 동시에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왔다. 그리하기에 후보 선택에 작용하는 이념의 영향력은 합리적인 유권자의 존재와 선거 민주주의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유권자의 이념에 근거한 투표선택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of 고질적 병폐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지역주의를 상쇄하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이념투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론들의 기대와는 달리, 본인과 경쟁하는 후보의 이념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인식하며 비교평가를 수행하는 ‘합리적인 유권자’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투표선택을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근접성으로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에 한국인 유권자,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유권자의 모습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선거 민주주의의 작동에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급하고 확장된 해석을 경계하고 싶다.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거의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교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연계는 선거 민주주의의 작동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 자체가 어쩌면 과거로부터의 행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민주주의 이론들은 미처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론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일 2013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27일

참고문헌

- 강신구. 2013. “2012년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의 이념.” 박찬욱·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87-134.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강원택. 2003. “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5-30.
-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 강충구. 2013. “대선 패널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박찬욱·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18-42.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서울: 풀빛.
- 김주찬·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13권 2호, 87-103.
- 문우진.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87-112.
-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27-54.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성향 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다』, 193-248. 서울: 생각의 나무.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163-82.
- 윤성이·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권 3호, 63-82.
-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호, 137-66.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권 2호, 41-72.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4집 2호, 45-67.
- 이상신. 2013. “18대 대선과 태도극화.”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217-42.
- 이현지. 2003. “정치적 이념의 형성과 가치변화: 16대 대선에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7호, 125-48.
- 장승진. 2012.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99-120.
- _____. 2013. “당파적 성향과 후보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인식.” 이내영·서현진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최영진. 2001.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149-65.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94.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06. “It Feels Like We’re Thinking: The Rationalizing Voter and Electoral Democracy.”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August 30-September 3.

- Beasley, Ryan K. and Mark R. Joslyn. 2001. "Cognitive Dissonance and Post-Decision Attitude Change in Six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Psychology* 22, 521-40.
- Brady, Henry E. and Paul M. Sniderman. 1985. "Attitude Attribution: A Group Basis for Political Reason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 1061-78.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450-58.
- Budge, Ian, Hans-Dieter Klingemann, Andrea Volkens, Judith Bara, and Eric Tanenbaum. 2001. *Mapping Policy Preferences: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1945-19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 Sungdai and James W. Endersby. 2003. "Issues,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d British General Elections: A Comparison of Proximity and Directional Models." *Public Choice* 114, 275-93.
- Conover, Pamela J. and Stanley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617-45.
- _____. 1989. "Candidate Perception in an Ambiguous World: Campaigns, Cues, and Inference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912-40.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Its Discontents*, 206-61.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31.
- Davis, Otto A., Melvin J. Hinich, and Peter Ordeshook. 1970. "An Expository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Model of the Elector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426-48.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Y: Harper and Row.
- Feldman, Stanley and Pamela J. Conover. 1983. "Candidates, Issues, and Voters: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Journal of Politics* 45, 810-39.
- Jacobson, Gary C. 1990.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334-62.
- Jacoby, William G. 1991. "Ideological Identification and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78-205.
- Jhee, Byong-Kuen. "Ideology and Voter Choice in Korea: An Empirical Test of the Viability of Three Ideological Voting Model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0, No. 4, 61-83.
- Kinder, Donald R. and Nathan P. Kalmoe. 2010. "The Nature of Ideological Identification in

Mass Publics Part III: Consequences.”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April 22, 2010.

Klingemann, Hans-Dieter, Andrea Volkens, Judith Bara, Ian Budge, and Michael McDonald.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II: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evitin, Teresa E. and Warren E. Miller.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751-71.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1055-70.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93-121.

Riker, William and Peter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2.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

ABSTRACT

Short-Term Fluctuation of the Ideological Perceptions: Panel Data Analysis on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hin-Goo Kang | Ajou University

Theories of rational voting behavior have argued that ideological voting is empirically natural as well as normatively desirable, since it is difficult and even inefficient for ordinary voters to compar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individual policy alternatives offered by competing candidates and parties in elections. In that case, it would be wise to use ideology as an informational cue. In order for this positive view to be held, however, it is necessary for ordinary voters to be able to perceive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the candidates and their own, correctly and stably. This paper analyzes short-term fluctuations of the ideological perceptions based on th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the 5-month period surrounding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 as well as the voter's perception of candidate ideological position show not only significant level of fluctuation in a relatively short time period but also some systematic patterns of change. That is, voters tend to perceive the ideological distance as short for their favored candidate and as distant for the candidate that they dislike. We believe this result suggests that both of the projection and the persuasion mechanisms are working in the voter's ideological perceptions.

Keywords: ideological voting, ideological perception, persuasion effect, projection effect

